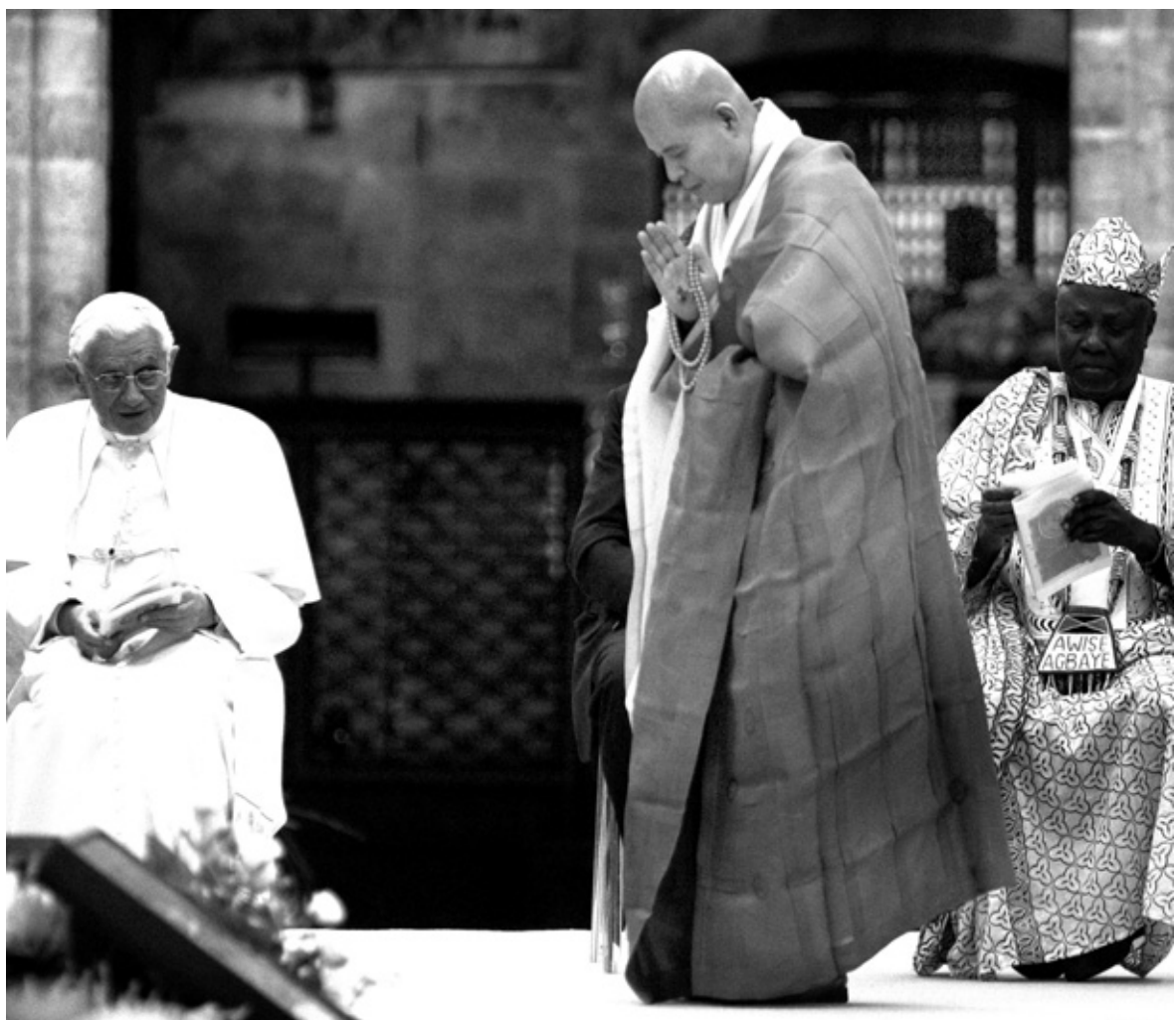


# 5대 결사 지구촌 함께 하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0월 27일 로마 아시시에서 열린 '세계평화 기도의 날' 행사에서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과 초연결(hyper-connection)의 시대 상황이 다르지 않음을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공존과 평화를 위한 평화·문화·나눔·수행·결사를 세계종교지도자들에게 제안하고 동참을 호소했다. 글=조동섭 기자·사진=AP연합통신

## 세계평화기도회 연설문

먼저, 오늘 이 성스러운 자리를 마련해주신 존경하는 교황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화와 화해의 기운이 가득한 이곳 아시시에 세계의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런 뜻 깊은 만남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친애하는 종교 지도자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거침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첨단정보통신과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로 서로 간의 소통과 연결이 신속히 확대, 심화되고 있습니다. 방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간 연결의 파급효과가 즉시 나타나고 널리 확산되는 초연결(hyper-connection)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남은 별개의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관돼 있습니다. 일찍이 불교는 연기적 세계관을 통해 이런 진리를 간파했습니다.

은 세상에 다양한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나' 라는 꽃과 '너' 라는 꽃이 생겨났다 사라집니다. 나와 너 제 각각 소중한 생명의 꽃을 한껏 피워 자기 발전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장엄한 하나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세계는 하나의 꽃입니다. 모든 생명은 있는 그대로 존귀합니다. 꽃처럼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폭력과 테러는 종교의 생명존중 정신과 조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나 이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전쟁의 뿌리를 근절하기 위한 생명결사를 주창합니다. 종교와 인종과 문화를 넘어 공존과 상호존중을 통해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평화결사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다양한 문화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문화의 충동을 배움과 상생으로 승화하여 정신문화를 다함께 장달하기 위해 문화결사를 해야 합니다. 아직도 빈곤과 기아, 불평등과 불균형으로 고통 받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 나눔 결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정신 수행입니다. 모든 것은 이미 온전하며 하나의 꽃처럼 섬세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 몸소 체득하여 각자의 삶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수행결사를 함께 실천해 가기를 제안합니다.

친애하는 종교 지도자 여러분  
조계종은 종교평화 선언을 통하여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이루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고통 받고 소외된 모든 생명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구촌 곳곳의 가난과 질병을 퇴치하고 전쟁과 폭력을 방지하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아 모든 생명이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함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 2012년 조계종 예산 3억원 늘어

### 승려복지·승려교육 등 핵심주요과제 중심 편성

조계종의 내년도 한 해 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대폭 늘어났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불기255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3억 1500만원(1.45%) 늘어난 221억5천 678만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87억7351만원(83.2%) 늘어난 193억1453만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일반회계에서는 중앙분담금이 10% 인상됐다. 직할분담금은 직할 사실사양의 분담금을 상향조정한 결과 8.6% 늘어났다. 또, 특별분담금 0.9% 늘었고, 문화재관리료분담금은 양양 낙산사가 내년부터 문화재관리료를 징수하게 돼 1.5%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직영분담금은 동결되고, 법인분담금은 관계법령이 계류중인 것을 감안해 13% 줄었다.

특히 그동안 예산에 반영되지 않던 사찰협찬금과 기업후원금 등을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일반회계에 편입시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세출에서는 중앙총회 위원회들의 예산은 줄이는 대신 제33대 집행부의 핵심주요과제와 결사 관련 업무를 지원키 위한 부서의 지출규모는 늘렸다.

승려노후복지와 한국불교 세계화, 사회적 공동선 실현, 승가교육 체계 정비 및 승가교육 개선 등 핵심과제와 해외교구 설립 및 체계적 관리, 통합종무프로그램 개발 등 주요과제에 따른 예산배정 외에도 2012년 통합종단 출범 5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한 예산 등이 배정됐다.

자성과 쇄신 결사를 위한 결사추진본부에는 7억원, 불교사회연구소에는 3억원의 예산이 짜여졌다.

특별회계 증가분은 승가교육 13억원, 승려복지 30억원, 템플스테이 사업 관련 종단 자부담 증가분 13억원, 마곡사 전통불교문화원 18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조동섭 기자 cetauna@gmail.com

## 나눔·환경·인재양성을 최우선으로

대한불교진흥원 김규철 이사장은 10월 25일 서울 다보빌딩에서 열린 자신의 취임식에서 "세상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선순위를 매겨 기본사업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이사장은 소외된 이웃돕기, 환경문제, 청소년의 사회활동역량 배려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조동섭 기자

## 10·27법난 아직도 풀어야 할 것 많다

### 10·27법난 31주년 기념법회...정부 측 인사는 불참해

10·27법난 발생 31주년을 맞아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정부의 진정된 사과와 불교계 명예회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0월 26일 국무총리 소속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10·27법난 3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보선 스님,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장 영담 스님, 도선사 회주 혜성 스님,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 등 법난 피해자 스님들과 김의정 중앙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중앙총회의장 보선 스

님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10·27법난을 기념하는 것은 그 치욕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정법수호의 일념으로 더욱 정진해 지난날 아픔이 불교발전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명예회복 심의위원장 영담 스님은 "법난 기념관 건립 관련 정부 예산 확정, 법난 명예회복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한 피해신청 증가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며 "한국불교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명예훼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념법회에서 법난 피해자 대표로 연단에 선 원행 스님은 "정부는 종단에 부정적 오명을 뒤집어 씌우고 수많은 스님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참회해야 한다"며 "법난을 반면교사로 삼아 종단이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10·27법난의 피해자 혜성 스님 대법원서 패소... "시효 소멸됐다"

### 반인도주의 범죄는 공소시효 없다는 판결 뒤집혀

서울 도선사 회주 혜성 스님이 10·27법난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10월 27일 상고심을 열어 혜성 스님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가 소멸했

다 6월 서울고법 판결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번 판결은 반인도주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다는 기존 판결을 뒤집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노덕현 기자

## 마애불 더 없다

### 조계종, 발굴 종료 발표

4대강(낙동강) 사업 구간 중 경북 의성군 생송리 낙단보 주변에서 진행된 제2마애불 발굴조사가 성과 없이 종료됐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진명)와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미등)와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원장 5월과 9월 두차례의 조사를 통해 낙단보 제2마애불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발굴조사를 했지만 마애불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10월 26일 밝혔다.

이들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마애불이 존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조계종은 낙단보 인근에서 고려시대 마애불이 발견된 데 이어 그 근처에 또 다른 마애불이 있었다는 주민 증언을 근거로 이를 위한 발굴조사를 문화재청에 요청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 박규원 만평



八關會 호국불교 의식 재현

2011 전통문화

# 팔관회

## 2011. 11. 5.(토) ~ 6.(일) 2일간

### 초읍어린이대공원 내 학생문화회관

11월 5일(토) 09시 ※행사종료 후 경품추첨

제3회 부산시민걷기대회 "명상따라 걷는 부산불교"

11월 6일(일) 13시

고려팔관회 재현 및 수계법회

불교연합회 : 867-0501 불교연합신도회 : 861-8800

※행사 후 "팔관회" 소원성취 발원 「약사여래본원경」을 인연 불자 1,000여명에게 법보시 합니다.

www.bba.or.kr

### • 온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문화체험

11월 6일(일) 10:00 ~ 18:00  
고려의상체험, 경전탁본체험, 연꽃만들기, 컵연등만들기, 단주만들기, 팔관회재현 "낙종이인형" 전시, 전통사진전, 전통차나눔, 전래놀이한마당, 버튼만들기, 팽이만들기 등 30여 무료체험부스 운영.

### • 팔관회 축하공연 1부 "우리가락 한마당"

11월 6일(일) 17:00 ~ 18:00 판소리, 민요, 퓨전국악, 타악퍼포먼스

### • 팔관회 축하공연 2부 인기가수 초청공연

11월 6일(일) 18:00 ~ 19:20 설운도, 장윤정, 박일준 등

